
일제하 김해지역의 고적보존회 실태와 활동

선우성혜 / 동의대학교 사학과

目 次

I. 서론	IV. 구성원 : 말단 행정조직망과 일
II. 설립	체화
1. 배경	V. 결론
2. 전개	
III. 활동	부록,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1. 수로왕릉 유지를 중심으로 정비	
2. 「金海古蹟周遊公園」 조성 사업	

I. 서 론

김해지역은 옛날 가락국의 중심지이자 일본인들에게는 소위 '임나일본부'의 중심지로 고대 일본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인식된 곳이었다.¹⁾ 때문에 총독부박물관과 일제 관변학자들의 주도로 일찍부터 고대 한일관계를 고증하기 위한 고적조사사업이 이루어졌다. 이들의 고적조사는 현지에서 그것을 보조할 수 있는 고적보존회의 설립을 유도하였다. 김해에서도 고적조사사업의 영향으로 1917년 고적보존회가 설립되었다. 이와 같은

1) 「임나고지기행(上)」, 『매일신보』 1915. 7. 22.

지역 단위 고적보존회에 관해서는 최석영²⁾, 이순자³⁾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최석영은 부여고적보존회를 통해 총독부가 식민지 통치 이데올로기를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밝혔다. 이순자는 일제의 고적조사사업을 개괄하고 그 식민성과 함께 고적조사사업의 보조기구라는 고적보존회의 성격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 결과 지역 단위 고적보존회에 대해 많은 부분이 밝혀졌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총독부, 총독부 박물관 및 고적조사위원회 그리고 지역고적보존회로 연결되는 일반적인 측면에서 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그런 의미에서 김신재⁴⁾ 등의 연구가 주목된다. 김신재는 고적보존회를 주로 연구하진 않았으나 지역 고적과 도시 변화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지역 단위 고적보존회의 활동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가능성을 주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그럼에도 고적과 도시 변화 사이에서 보존회의 역할은 어떠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아 아쉽다. 한편 기왕에 축적된 연구 성과를 통해 김해에

2) 최석영, 1997, 『일제의 동화이데올로기의 창출』, 서경문화사; 2002, 「식민지 시대 ‘고적보존회’와 지방의 관광화 -부여고적보존회를 중심으로-」, 『아시아 문화』 제18호,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 연구소.; 2002, 「일제의 식민지 상황에서의 부여고적에 대한 재해석과 ‘관광명소’화」, 『비교문화연구』 9, 서울대 비교문화연구소.; 2005, 「일제 강점 상황과 부여의 ‘관광명소’화의 맥락」, 『인문과학논집』 35, 인문과학연구소. 2004. 『한국박물관의 근대적 유산』, 서경, 2004.

3) 이순자, 2007,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사업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8, 「1930년대 부산고고회의 설립과 활동에 대한 고찰」, 『역사학 연구』 Vol.33, 153p~193p.; 2009, 「일제강점기 지방고적보존회의 활동에 대한 일고찰 -개성보승회를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 사학회』, Vol.58, 285p~328p.

4) 김신재, 2009, 「1910년대 경주의 도시변화와 문화유적」, 『신라문화』 33,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89p.~109p.; 2011, 「1920년대 경주의 고적조사정비와 도시변화」, 『신라문화』 38,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331p.~354p.

대해서도 정리가 되었는데 개요를 소개하는 정도로 머물렀을 뿐 정작 심도 있는 분석이 없었다. 각 지역에서 활동하던 고적보존회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성격을 보이기 마련이다. 김해는 전통을 지켜 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어느 지역보다 강하게 남아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지역에서의 고적보존회 활동은 기왕의 연구에도 시사점을 준다.

수로왕 후손들은 오랜 시간 꾸준히 김해지역의 수로왕 관련 유적을 정비하여왔다. 식민지 통치 아래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수로왕 유적을 관리하고 현창하는 사업에 적극 나섰다. 그런데 합방이 되자 후손 중심의 수로왕 유적 보존 활동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그것은 총독부가 조선의 고적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시행하고 이에 수반한 시가지 계획이나 지역 개발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총독부의 움직임은 김해군에서도 군수, 면장을 중심으로 한 고적보존회 조직의 활동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과정에서 후손들에 의한 현양 사업은 주로 수로왕 묘역 정비 사업으로 나타났고, 반대로 고적보존회는 김해군 시가지 계획과 그에 따른 대공원 조성 문제와 관련하여 수로왕 유적을 지역개발에 이용하는 사업으로 나아갔다.

현양과 활용이라는 두 가지 흐름이 교차하면서 수로왕 유적지 정비와 대공원 조성 사업은 갈등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후손 본위로 운영되던 김수로왕 유적 현양 사업이 새롭게 군수, 면장 등이 포함된 고적보존회의 지역 개발 활용 사업으로 전환하였다. 그런데 고적보존회 구성을 볼 때 대부분 군수와 각지 면장이라는 지역 행정조직망의 책임자들이 모여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이채롭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러한 조직이 고적보존회 이름 아래 모였을까. 또한 의안도 본연의 고적 보존과

는 상관없이 시가지 문제나 행정적인 차원이나 지역 개발 차원에서 고적 활용 문제가 제기되었다. 애초 현양의 대상이던 수로왕 유적은 지역 개발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 점이 바로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부분이다.

요컨대, 본 연구는 기왕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새롭게 확인한 자료를 통해 일제하 김해고적보존회의 실태와 활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김해고적보존회가 실제로는 지방 관치행정의 보조역 혹은 국책과 통치의 또 다른 행정라인이었으며, 이들의 활동도 그러한 국가적 목표와 무관하지 않음을 밝히고자 한다. 아울러 후손 중심의 유적 보존에서 벗어나 일면 적극적으로 지역 개발이라는 명분으로 전개된 고적 보존 사업이 가지는 허와 실을 밝혀보고자 한다.

II. 보존회의 설립과 전개

1. 설립 배경

고적보존회의 설립을 유도한 것은 당대 조선총독부가 추진하던 고적조사사업이었다고 할 수 있다. 총독부에 의한 조선 문화재 조사는 1916년 이전에는 關野貞에 의한 고적조사사업과 鳥居龍裝에 의한 사료조사사업이 병행되었다. 김해에서 고적조사사업이 처음 시작된 것은 1907년이었다. 당시 교토 대학에서 조선사를 전공한 今西龍이 김해 패총을 발견한 이후 關野貞가 김수로왕릉, 객사(분성관), 김수로왕비 허씨릉을 조사했다.⁵⁾ 그 후 1915

년 조선총독부 촉탁 黑板勝美는 총독부와는 별개로 동경제국대학의 의뢰로 '임나일본부설'에 대한 물증을 찾고자 총독부의 허가 아래 김해지역의 발굴조사를 실시했다. 이때 수로왕릉 인근 고분의 도굴 현장을 목격하고 김해군청 직원 및 헌병과 협의하여 15명의 인부를 동원해 수로왕릉 및 인근 고분을 발굴 했다.⁶⁾

일제는 1915년 '시정 5주년 기념 물산공진회'를 개최한 뒤 진열관 중 미술관을 개조하여 1916년 조선총독부 박물관을 설치했다. 이때부터 기왕의 고적조사는 총독부 박물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사업의 시행을 구체화하기 위해 1916년 7월 「고적급 유물보존규칙」(이하 보존규칙)을 발표하고 고적조사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이 보존규칙은 일본에 비해 3년이나 앞서서 제정되었고, 일본은 처음으로 체계적인 문화행정을 조선에서 시험적으로 경험하게 하였다.⁷⁾ 1916년부터 고적조사도 5개년 계획으로 이루어졌는데, 김해지역에 대한 조사는 1917년부터 이루어졌다.

1917년 黑板는 측량원 1명, 사진사 1명과 함께 8월 17일 경성

5) 이순자, 2009,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사업 연구』, 경인문화사, 50p.(<표 2-5>참고.)

6) 1916년 「古蹟及遺物保存規則」 이전에도 「朝鮮總督府警察總監部事務分掌規定」에 의해 매장물에 관한 사항은 保安課行政警察係이 담당하였고, 1913년 「埋藏物發見の届出」(훈령 제2호)에 의해 고적조사사업에 대한 총독부의 허가를 필요로 했다. (이기성, 2009, 「조선총독부의 고적조사위원회와 고적급유물보존규칙-일제강점기 고적조사의 제도적 장치(1)-」, 영남고고학회, 『영남고고학』 제51호, 35p.~60p.); 「임나고지기행(上)」, 『매일신보』 1915년 7월 22일 기사에 의하면 당시 고분조사를 위해 현지 관청의 직원과 헌병에게 절차를 수속했다는 것으로 보아 조선총독에게 허가받은 사항을 현지에서도 확인 한 후 발굴이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7) 藤田亮策, 1915, 「朝鮮古蹟調査」, 『古文化の保存と研究』, 334p~335p., 342p. (이성시, 1999, 「黑板勝美(구로이타 가즈미)를 통해 본 식민지와 역사학」,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한국문화』 23, 251p.~252p. 재인용.)

을 출발하여 고령을 거쳐 김해에 들어와 고적조사를 실시하였다. 우부면 회현리 고분군, 내동리 고분, 주촌면 농소리 왜성지, 양동리 가곡산성지, 가락면 죽림리 죽도산성지, 장유면 내청리 영두산 성지, 유하리 고분군 등이 조사되었다. 黑板일행은 김해군에서 발견된 銅・鑛・金環과 기타 부장품을 수집한 후 8월 30일 서울로 돌아갔다.⁸⁾ 黑板과 별도로 鳥居龍裝가 사진사 1명과 김해의 우부면 회현리 패총, 장유면 유하리의 석기시대 유적 및 주촌면 망덕리의 撐石, 가락면 죽산리 죽산성지를 조사했다. 이때 회현리 패총에서 석관을 발견하였고, 1월 14일 경성으로 돌아갔다.⁹⁾ 1919년에는 梅原末治와 濱田耕作가 김해패총의 조사를 통해 鐵製利器나 玻璃製玉 등이 중국에서 수입된 것을 확인하고, 고대시대의 중국 문화의 영향을 지적하였다.¹⁰⁾

이상과 같은 상황에서 1917년 2월 당시 김해군수 李元鎬에 의해 김해군보승회가 조직되었다. 군수는 김해지역에 방치된 역사상 고적을 영구히 유지할 방침으로 김해공립보통학교에서 발기인회를 개최하였다.¹¹⁾ 1916년 「보존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고적조사사업으로 고적조사의 필요성이 부각되자 군수가 중심이 되어 보승회를 조직한 것이다. 이는 1915년 이후 총독부 박물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고적조사사업을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이었다. 그해 11월 26일에 총독부 총무국장은 각도 장관에게 「명승고적의 보존에 관한 건」(총제469호)을 보내 그때까지

8) 조선총독부, 1918, 「古蹟調査の狀況」 『조선휘보』, 83p.

9) 조선총독부, 1918, 「古蹟調査の狀況」 『조선휘보』, 84p.

10) 1923. 「金海貝冢發掘調査報告」, 『大正9年度古蹟調査報告』 제1책, 47p.(이순자, 2007, 위의논문, 인용).

11) 「진주 : 김해군 고적보승회」 『매일신보』 1917. 2. 27.

활동하고 있는 고적보존단체의 명칭, 구역, 보존의 주지, 설립시기, 회계, 시설, 규칙류, 발간물 등 현황에 대해 조사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¹²⁾ 그해 12월 8일 김해군수 이원호를 중심으로 사실상 법적 조직인 김해군고적보존회가 설립되었다.¹³⁾

2. 전개

본 고적보존회의 설립 이유에 대해서는 「보존회의 명칭 구역과 보존의 주지」라는 문건에 자세히 나온다. 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¹⁴⁾

보존회의 명칭 구역과 보존의 주지

가락국 수로왕릉 및 동 왕비릉은 2천 년의 역사를 말하며, 문묘는 또한 5백년전에 건축된 것으로 그 문화가 자랑할 만하다. 기타城跡, 고분 등 명소가 산재하고 혹은 임나부의 고적이 전해지고 임진의 전역(임진왜란; 필자)을 회고하게 할 만하다. 이에 오랜 비바람으로 옛날의 위용은 사라져 사방의 고목만이 울창하다. 대저 성스러운 시조의 위업을 숭경하고 雄圖를 후세에 전하고자 유적을 보존하고 그 혜택을 고루 펼쳐서 현대에 전한 것을 목적으로 하여, 본회를 발기하여 유적을 미화하고 본郡 발전의 밑천이 되게 하고자 여러 방면의 인사를 불러 본회의 취지를 익찬하도록 하고자 한다.

대정 6년 12월 8일 김해고적보존회장 이원호

12) 大正 6年 11月 26日, 總第 469호 「名勝古蹟の保存に關する件」(국립중앙박물관 고문서 106.)

13) 입법단체가 없어 법적단체라 할 수 없으나 종래 임의적인 성격의 김해군보수회가 총독부의 법적지도를 받는 법적기구로서의 성격을 보다 확충한 의미로 말할 수 있다.

14) 「保存會の名稱區域並保存の主旨」(국립중앙박물관 고문헌 161.)

즉, 보존회는 '성스러운 시조의 위업을 숭경'하고 '유적을 보존'한다는 취지와 함께 특별히 '본 郡(김해군)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즉, 총독부(김해군)는 고적보존회가 종래의 성지 보존에서 지역발전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본 고적보존회에 부여한 것이다. 그러면서 고적보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보존회 규칙을 제정하였다.

보존회 규약

제1조 본회는 김해고적보존회라고 칭하고 사무소는 경상남도 김해에 설치한다.

제2조 본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현재 고적의 유지 보존
2. 매몰된 史蹟 遺物의 현창
3. 고적 및 유물의 현황과 촬영
4. 기타 고적 및 史蹟 보존상 필요한 수단 강구

제3조 앞 조항의 목적에 찬성하고 본회 사업에 협조하는 자를 회원으로 한다.

제4조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설치한다.

회장 1명 부회장 1명 평의원 약간 간사 약간

제5조 회장은 경상남도 김해 군수로 선임한다.

제6조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사고 시 그를 대리한다. 평의원은 본회의 사무에 대한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보조한다.

제7조 본 회의 경비는 수로왕 자손 및 유지 등의 기부금으로서 지변하고 별도로 회비를 징수한다.

제8조 본 회 사업시행에 관한 세칙 및 회계에 관한 세칙은 역원회에서 그것을 정한다.¹⁵⁾

15) 「金海郡古蹟保存會規則」(국립중앙박물관 고문서 106.)

보존회 규칙에서는 위와 같이 (1) 현재 고적의 유지 보존 (2) 매몰된 史蹟·遺物의 현장 (3) 고적 및 유물의 현황과 촬영 (4) 기타 고적 및 史蹟 보존상 필요한 수단 강구 등의 과제가 특별히 강조되고 있다. 취지에서 밝힌 지역발전에 이바지 한다는 계획에 부응하는 구체적인 방안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서 이러한 취지를 지역의 유지들에게 배포하였다. 동시에 이때 제정된 규칙 등 단체에 관련된 사항은 1918년 7월 경남도장관의 회신을 통해 총독부에 보고되었다.¹⁶⁾ 그런데 당시 신문기사 등 자료에 의하면 김해지역에서는 1917년부터 1936년까지 <표-2>와 같이 다양한 명칭의 고적보존단체들이 등장한다. 『매일신보』 등 각종 문서에는 김해고적보존회 이외에도 김해고적보승회, 김해사적보존회 등의 명칭이 산견된다. 그럼에도 이들 단체 회장은 모두 김해군수가 맡고 있었다는 점에서 조직 명칭은 설립 시기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었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은 성격의 조직인 것이다.

<표-2> 일제하 김해지역 고적보존단체 현황

설립시기	명 칭	설립주도
1917년~ 1928년	김해고적보존회 / 김해고적보승회 / 김해사적보존회	이원적(김해군수)
		민인호(김해군수)
1931년	김해군고적보존회	황덕순(김해군수)
1934년	김해군고적보존회	김해군수
1936년	가락국왕 유적봉존회 / 가락왕사편찬위원회	김해군수
	김해왕릉봉존회	김의용(김해군수)

16) 회신내용을 살펴보면 1918년 7월까지 부산, 김해를 포함한 3개 지역 외에는 고적보존단체가 없었다. (大正 7年 1月 24日, 慶南學第 1846호 「名勝古蹟の保存に關する件」(국립중앙박물관 고문서 106.))

비고 : 단체의 명칭과 주도 인물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 명칭을 병기하거나 이름을 제외하고 김해군수로 단순 표기했다.

참고 : 「고적보존회 관계 문서」(국립중앙박물관 고문서 106., 161.), 『매일신보』, 『동아일보』, 『조선휘보』, 『조선사회교육조사요람』(1941) 등

1920년대 후반에서 30년대는 지역의 경쟁력 강화 일환으로 지역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식민당국의 개발정책과 더불어 지역민들 사이에 철도와 도로 부설, 시가지 정비, 학교 설립 등 지역발전을 둘러싼 모색과 갈등이 전국적으로 나타났다.¹⁷⁾ 이 시기 김해에서는 고적을 중심으로 하는 현대식 공원조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매일신보』에서는 공원이 조성되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¹⁸⁾ 그와 함께 지역민들 사이에서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는 만큼 갈등도 나타났다.¹⁹⁾ 특히 수로왕릉을 중심으로 선양사업을 펼치고 있던 김해 김·허 가문에 의해 설립 초기부터 활동에 어려움이 있었다.²⁰⁾ 이때 공원조성사업 추진 주체는 김해고적보존회였고, 1930년대 중반까지 공원조성사업이 주목될 때 마다 김해고적보존회도 같이 부각되었다.

17) 허영란, 「시가지 개조를 둘러싼 지역주민의 식민지 경험-안성의 철도·시장·공원 그리고 지역주민-」, 『역사문제연구』 제17호, 2007, 41p.

18) 「任那舊都 金海에 古蹟周遊公園 造園學權威들이 設計, 博物館도 設立」, 『매일신보』, 1928년 6월 19일.

19) 예산문제와 관련하여 면협의회 내에서, 지역민들과 행정당국 사영에서 갈등도 나타났다. (「문제의 공원비삭감하고 사표철회 가락면협의회원 사직사건, 면장진퇴가 주목처」, 『동아일보』, 1932. 5. 1. ; 「김해군 가락면의 공원문제遂重大化 上司方針과民意에 兩難하야 면장면협의회원회계원총사직」, 『동아일보』, 1932. 5. 24.)

20) 후에 기술하겠지만 보존회는 설립 초기 수로왕릉을 중심으로 고적의 보존과 함께 공원화 하려했으나, 수로왕 후손들의 반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다. (송선전지속간위원회, 1980, 『崇善殿誌』, 대경출판사.)

한편 1933년에는 제령 제6호로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 보존령』(이하 보존령)을 시작으로 그 시행규칙 등이 잇달아 제정·공포되었다. 이제 총독부의 고적정책은 1916년 『보존규칙』과 달리 보존에 더욱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²¹⁾ 이 시기에도 김해지역에서 고적보존회의 모습은 계속 나타난다. 1928년에는 김해군수 閔麟鎬가 김해군사적보존회를 맡고 있었고, 1932년에는 黃德純이 김해군고적보존회를 맡았다. 김해군수를 중심으로 1934년에는 김해군고적보존회가 1936년에는 가락국왕유적봉존회, 김해왕릉봉존회가 등장했다. 그런데 1936년 두 단체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하나의 단체로 통합된 것으로 보인다.

처음 가락국왕유적봉존회에 대한 신문기사가 나온 뒤 3개월이 지나자 다시 신문에는 김해왕릉봉존회라는 명칭으로 도 장관의 허가를 받는 모습이 나타났다. 기사 내용을 고려하면 설립의 인가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도청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²²⁾ 또 이때 『가락국지』의 발간을 위해 가락왕사편찬위원회라는 별도의 조직도 만들어졌다. 1936년 이후 고적보존회의 전개 역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수로왕 후손에 의한 현양활동도 이 시기 이후 위축되는 것으로 보아 고적보존회도 조직을 이어가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럼에도 후손들을 중심으로 춘추로 제사를 꾸준히 지냈고, 특히 1936년 가락국왕유적봉존회는 해방 이후 현재 서울에 있는 가락중앙종친회로 이어졌다.²³⁾

21) 조선총독부, 1937, 『朝鮮寶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要目』.

22) 「고도김해에다 대공원설계, 가락국왕유적 보존회 조직, 기금 30만원모집」, 『동아일보』 1936. 1. 18. ; 「2천년전 대가락국의 왕릉 중심 대공원건설, 30만원의 공비를 들여서, 도산림과의 설계완성」, 1936. 4. 17.

이상과 같이 1917년 김해 고적보존회가 최초로 설립된 이후 보존회는 시기에 따라 그 명칭을 달리하면서 명맥을 이어왔다. 처음 형성될 당시는 총독부 박물관에 의한 고적조사사업이 진행되자 이를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만든 것이었다. 그 후 「고적보존에 관한 건」(총제469호)를 계기로 사실상의 법적단체로 설립되었다. 그러나 이후 그 활동이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초기의 설립 취지에 맞는 사업은 진행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지역개발의 일환으로 진행된 공원조성사업을 주도하면서 다시 등장하기 시작한다. 이후 공원사업의 진행과 관련하여 이름이 등장했으나 이 역시 원활하지 못하였다.

II. 활 동

1. 수로왕릉 유지를 중심으로 정비

보존회가 사실상의 법적단체로 조직된 이후 공식 활동은 수로왕릉 정비 사업이 중심이었다. 이는 기본적으로 김해지역의 고적을 정비·현상유지하자는 의도가 짙은 것이었고, 그 대표적인 유적으로서 수로왕릉이 중심이 된 것이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김해고적보존회규칙」에 자세히 나온다.²⁴⁾

23) 이는 승선전을 관리하시는 어르신과 면담에서 확인했다.(면담일: 2013년 1월 28일)

24) 「金海古蹟保存會規則」, 국립중앙박물관 보관 고문서 106.

1. 수로왕 사적과 자손의 연혁을 조사하고 왕릉지를 편찬
2. 왕릉 및 비릉의 주위에 침엽수를 심고 송경의 모임을 일으켜 외관을 정리
3. 습지와 늪지도랑을 굴착하고 토사를 퇴적해 구릉을 만들어 잔디, 앵두나무, 단풍, 소나무 등의 화분수목 식재
4. 제2항의 구역 외에는 그것을 개방하고 일반 관람자의 유람을 제공하는 도로를 만들고 공동의자 등을 설치
5. 문묘주위에 침엽수를 심고 정문 내곽 등의 수선

사업의 주요 내용은 수로왕 사적 조사, 왕릉지 편찬, 왕릉 외관 정리, 기념모임 설립, 습지와 늪지도랑 굴착, 화분과 수목 식재, 관람도로설치, 공동의자 설치, 문묘 주변 정리 등이었다. 김해군고적보존회 규칙에 의하면 이를 위해 왕릉문묘의 영선비로 화분구매 8백원, 토목비 2천원, 사적조사 및 왕릉지 편찬비 2백 원으로 총 3천원을 책정하였다. 그 외 매몰된 사적유물의 현창, 고적 및 유물의 현황촬영 등에 관한 사업이 있지만, 구체적인 예산은 알 수 없었다. 아마도 사업을 수행하기에는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못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보존회의 사업은 단순히 유적을 보수·유지하는 것이 아니었다. 능역주위 정비는 사실상 연못을 만들고, 여기에 잔디·앵두나무·단풍·소나무 등의 식목하여 왕릉 외 사적에 대해서 일반의 관람을 제공하려는 것이었다. 이는 조선인의 전통을 지역 개발의 논리로 위락시설화 하려는 의도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무오년(1918) 김해군수 이원호 주간으로 시조왕 능림안에 연못을 파고 벚꽃나무 등을 심어서 공원화 하려고 하였다. 그 후 김·허 양

중회에서 이를 반대하였고, 경상남도 당국에서도 『막중 존엄한 능림에 유흥지 설치는 불가하다』고 해서 중지되었음²⁵⁾

즉, 신성한 능림을 파헤치고 유흥지를 만드는 일은 김해 김·허씨 양 종회의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었다. 토지조사사업의 실시이후 수로왕릉 정비를 위한 위토답도 강제로 몰수되었다. 이에 후손들의 불만도 적지 않았다. 1917년 이후 지방제도 개편이 제도적으로는 어느 정도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방 지배를 위해 지역민들의 반발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특히 김해의 경우 수로왕 후손들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 질서가 강한 지역이라 할 수 있으므로 총독부로서는 더욱 조심스러운 입장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현재 숭선전을 통해 이와 관련된 문건의 여부를 조사했으나 구체적인 문건을 발견할 수 없었다. 다만 지금도 김해시를 비롯한 시민들은 수로왕릉의 전면개방을 요구하고 있으나, 후손들로서는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능묘가 훼손되는 것을 이유로 일부 개방만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현재 숭선전에서는 이러한 논리로 일제강점기 김해지역 고적보존회의 활동을 이해하고 있었다.²⁶⁾ 이에 대해서는 보다 더 많은 조사가 필요할 것이나 어쨌든 후손들의 반발이 거세어 김해고적보존회의 수로왕릉 정비 사업은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25) 숭선전지속간위원회, 1980, 『崇善殿誌』, 대경출판사, 657p.

26) 이는 숭선전을 관리하시는 어르신과 면담에서 확인했다.(면담일 : 2013년 1월 28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까지 조금씩 진행되던 수로왕 후손들의 선양사업은 점차 활기를 띄었다. 이 시기 고적보존회에 참가한 후손들의 현양 활동도 활발하여 수로왕 관련 유지에 대한 전면적인 보수·정비작업이 있었다.²⁷⁾ 1920~1923년 재실(崇報齋)과 대문을 고쳤는데, 대문은 2층을 올려 문루(龜南門)로 하였고 庖廚·목욕실·하당을 지어 담장 둘렀다. 이때 필요한 비용은 종종에 모금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1924년 현임 참봉 金灣斗와 군수 李章禧가 중증들과 의논하여 능침을 보수하고 석물·전등·중건신도비·延神樓 앞 複道를 개설하였다.

이어서 철홍문도 걸립하고 서쪽 담장을 수축·능상의 曲牆과 전각 앞 담장 등을 수축하였다.²⁸⁾ 이를 위해 숭선전 수리에 관한 기부금을 모집하고 '수리허가신청서'를 제출했으나, 그 구체적인 문건은 찾지 못했다. 1925년에는 가락루 앞 도로를 개설하였는데, 부산의 金性學의 부인이 패물을 팔아서 300원을 헌성했다. 이후로도 1926년 신도비각 보수, 숭재 동쪽의 토석 담장 신축, 숭선전 앞(납능 정문) 동서 양편 석조 담장 축조하고 전사청 북쪽 신문 1칸을 납능정문 서쪽에 이 건했다. 또 김해김씨 대동종약소에서 흥동위토답 2필 544평을 시가 445원에 매수하여 헌성하였고, 부산·동래 화수계²⁹⁾에서는 제수 교자 1좌 헌성하였다. 그리고 회로당(담장, 기둥 보수, 벽들의 단청, 전각 및 능소 석문) 및 납능신문을 증수한 후에는 기문을 지었다. 이때 위토답 매매

27) 숭선전지속간위원회, 1980, 『崇善殿誌』, 대경출판사, 639p. ~ 720p.

28) 김해문화원, 1999, 「가락국 태조왕능 중건신도비 병서」, 『金海金石文總攬』, 57p.; 「가락국태조왕릉 중수기적비」, 같은 책, 64~65pp.

29) 화수계는 조상의 묘제(墓祭)를 지내기 위해 만든 문중 모임이다.(브리태니커 백과사전)

가격을 포함하면 수리비용은 745원이 소요되었다.

1927년에는 金性學과 경향종중, 김해 화수계 등에서 대대적으로 정비했다. 수로왕능 경내 전기를 가설하고 가락국 태조왕능 중건신도비 1좌, 文官石 1쌍, 武官石 1쌍, 羊石 1쌍, 馬石 1쌍, 虎石 1쌍, 望柱石 1쌍, 석등 1좌, 김해읍 강동 위토답 3필 1936평을 헌성하였다. 또 가락국태조왕릉 중수기적비 1좌를 세우고 紅日傘 1좌, 黑日傘 1좌, 斧 10좌, 鉞 10좌, 弘齋服 10벌, 청사·홍사 초룽 6개를 지원했다. 이때 중수기적비에는 50원 이상 성금을 보낸 종중 관계의 이름을 새겼는데, 총 132명이 참여했고 여기에는 당시 군수 閔麟鎬도 있었다. 중수기에 있는 132명이 50원씩 내었다고 가정해도 최소 6,600원이 모금되었다.³⁰⁾ 1928년에는 盆城臺을 수축하고, 가락고도궁터라는 비석 세우는 한편 축판 1좌를 만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해군고적보존회가 다시 부각되는 것은 1928년 김해지역 내 고적을 연결한 「고적주유공원」사업이 논의되면서이다.

2. 「金海古蹟周遊公園」 조성 사업

설립 초기 보존회의 사업은 수로왕 후손들과 보존회의 갈등으로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1920년대 중반 이후 김해에서는 낙동교의 가설, 낙동강의 개수정리, 도로의 개수, 확장 등 지역 사회기반시설 정비 사업이 전개되면서 고적보존회 사업

30) 이 시기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사업에 들어간 비용은 6200원이었다.(송선전 지속간위원회, 1980, 『崇善殿誌』, 대경출판사, 675p. ~ 676p.)

도 그러한 개발 논리에 침윤되었다. 이에 1928년 월 김해 고적보존회는 지역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김해지역의 고적을 중심으로 일명 「금해고적주유공원」이라고 하는 현대식 대공원을 조성하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를 위하여 일본에서 직접 ‘林學의 大家’라는 本多 박사를 촉탁하려 했다.³¹⁾

경남 김해읍내를 중심으로 부근의 가락왕릉을 비롯하여 김해패총 기타의 고적을 연결한 김해고적주유공원은 이 지음 김해고적보존회의 손에 의하여 설계에 착수하게 되었는데 본월 하순경에 조원학의 대가 本多本郷 兩 박사를 초빙하여 실지로 답사한 후에 설계를 촉탁할터인바 모든 계획이 완성되면 김해면에 사업을 이관케하여 면영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며 동 공원 내에는 간이박물관 『호텔』 등도 설립하리라더라. 김해는 임나의 구도로 幾多의 古蹟史蹟이 풍부하나 지리적 관계인지 신라의 구도인 경주의 유명함에 비하면 거의 문제가 아닐만치 방치한 상태이었스나 만일 이 공원계획이 완성되면 부산으로부터 自動車行程이 二時間에 불과함으로 상당한 관광객을 迎 하게 되리라³²⁾

즉, 경주와 같이 유서 깊은 문화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방치되어 있던 것을 정비하여 많은 관광객이 유치될 수 있음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면영사업에 이관한다는 점에서 지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넓게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공원조성에 대해서는 설계자 本郷박사도 김해군이 고대 가

31) 本多, 本郷은 일본 조원학의 선구자적 인물이다. 특히 本郷은 스승인 本多靜六, 후배 上原慶二 등과 함께 일본 임학계의 대표적 인물로 조선신궁, 명치신궁 등의 건설에도 참여.(下村 彰男, 小野 良平, 西村 公宏, 1995, 「本郷高德 造園(學)の黎明期を支えた先驅者」, 『ランドスケープ研究』 59(1), 1p.~4p.)

32) 「任那舊都, 金海에 古蹟周遊公園, 造園學權威들이 設計, 博物館도 設立」, 『동아일보』, 1928. 6. 19.

락국의 유적으로 유명하니 고적을 중심으로 현대식 유원지를 만드는 것이 상당히 의미 있다고 보았다. 이에 고적보존회는 6개월 후 다음과 같이 <김해군사적보존 및 풍치계획>을 입안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³³⁾

1. 가락왕릉

왕릉 회로당 동남편 인가 있는 곳 1,300평을 새로 편입하고 왕릉 構內 소운동장도 폐지하여 엄숙한 분위기를 조성

2. 허후릉

능묘부근을 그대로 이용하는 범위에서 ?궁 앞 광장의 동북편에 약 750평의 부지를 더하여 조림하고 엄숙한 분위기 조성

3. 구지봉

사방공사 혹은 邊路를 새로 만듦

4. 남산 및 남지

<남산>

전망이 좋은 것을 이용해서 남산 서쪽 구지봉 하 종지 전부를 편입하여 화려하게 식목하고 매점, 휴게소 등을 설치한다. 산정상에 도착하는 迂道로 새로 만들어 김해중앙공원의 풍치가 생기도록 한다.

<남지>

공원의 여흥시설을 이곳에다 설치함. 남지는 중앙을 굴착하여 그 흙으로 臨水散步道를 만들고 나무를 심고, 남쪽 양측 삼각지 형에는 亭閣 또는 『쁘-트』 창고를 설치한다. 북편에는 臨水宴會集會所를 만들고 산보로에 전등을 설치하며, 남지에 접한 북편에 다 약 5천평의 공설운동장을 만들기로 한다. 여기에는 박물관도 설치한다.(경남도의 의견)

33) 「古保存爲主, 金海의 大公園, 園藝學大家本郷 博士考案, 俱體的設計書內容」, 『동아일보』, 1928. 12. 01.

4. 서공원(西公園)

鳳凰臺를 이용해 산 아래 부근 농지에다 약 1,500평의 소운동장을 설치하여 여성 또는 청년들의 유락지로 한다.

5. 초선대

초선대는 현재 그대로 이용하고 다만 仙岩通, 新程道로부터 초선대에 이르는 길만 신설하고 식목한다.

6. 가락성지

현상을 보존하는데 迂路 등 도로만 실설한다.

이를 보면 수로왕릉과 허왕후능은 주위의 부지를 매입하고 엄숙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지봉은 사방공사나 邊路를, 남산과 남지는 산책도로, 전등가설 휴게소, 매점 등 위락 중심의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또 서공원은 봉황대를 이용하고 소운동장을 설치하여 젊은이들의 유락지를 조성하고자 했으며, 초선대와 가락성지는 도로 신설·정비를 계획했다. 더욱이 경남도의 의견을 반영하여 박물관도 건립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 같이 설계안이 나왔음에도 사업의 시행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 후 1931년에 공원조성사업은 다시 등장한다. 이때는 김해군고적보존회를 결성하고, 시구를 개정하여 공원설치 및 기타 사업에 대한 협의회를 개최하고자 하였다.

경남도 김해군에서는 낙동강 가교 및 김해시구개정과 가티 명소구적의 소개를 널리 전조선적으로 선전코자 이선전의 수선과 공원설치 기타 사업에 대하여 협의회를 개최하고 사업의 범위한도 및 경비 염출방법의 연구를 행하여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기로 결정되었는데 위 협의회는 오는 28일로 확정되었다.³⁴⁾

34) 「가락국의 고도 김해 고적보존회 설립 시구개정까지 하기로」, 『매일신보』, 1931. 4. 18.

이 때 어느 정도 논의가 진척되었음에도 예산 등의 문제로 사업은 진행되기 어려웠다. 협의회가 개최되고 난 1년 후 1932년에 면 협의회에서 공원조성의 예산 문제를 놓고 지역민과 갈등이 야기되었다.

경남 김해군 가락면협의회 일동이 금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이 불경기 공황을 고하고 필요한 경비를 삭감하야 소위 가락공원비 2천원을 계상함은 실로 면장 김철식(金鐵植)씨의 무정견한 짓으로 말미암아 소위 하천공사에 대한 수익세금과 또 가교비 합계 금 22만5천50원이란 거액을 동면이 부담케 되어 면민이 살수없다는 불평을 부르지지고 협의회 일동은 면장 자문에 응치안키로 결의하고 일동이 총사직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얏스매 면장 김씨 역시 책임을 감당치 못하여 사표를 제출하여 면정이 험악화하든 바 이 사실에 놀랜 동군 황군수는 지난 27일에 전기 총사직한 면협의회원을 군회의실로 모으고 국력위무하는 동시에 문제의 그 공원비를 삭감하는 조건으로 총사직은 철회하얏는바 면장 김철식씨에게 대하여는 어디까지든지 배척함으로 면장진퇴에 대하여 주목꺼리라한다.³⁵⁾

즉, 이 시기 김해지역은 경기가 좋지 못한 상황인데, 필요한 경비를 줄여 당장 급하지도 않은 공원비로 조성한다는 점에서 지역민들의 반발이 있었다. 면장 金鐵植이 단독으로 계상한 2,000원은 다른 경비를 깎아서 공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조성한 것이었다. 문제가 불거지자 공원조성비 2,000원을 책정하지 않기로 하였지만, 지역민들의 불만과 면협의회원들 간의 갈등은 계속되었다. 심지어 지방 면협의회회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비판도 나타났다.

35) 「문제의 공원비삭감하고 사표철회 가락면협의회원 사직사건, 면장진퇴가 주목처」, 『동아일보』, 1932. 5. 1.

지방의 면협의회란 원래의 ○성이 자문기관으로 민의를 불용하는 등 일이 많아 협의회 자체는 오직 형식으로 개최함에 불과한 관계상 왕왕 분규를 발생하는 등 일이 작지 않다함은 사실이 입증되는 바어니와 금회 경남 김해군 가락면은 면장 면회계가 上司의 방침과 면민공상의 양난에서 지난 16일 사표제출과 짝하여 20일은 면협의 원 10명이 전부 연기하고 성명서를 세상에 공개하였다. 사건의 내용은 작년부터 공원설치문제가 상의되어 지금 농촌은 빈공의 극에 달하였을 뿐 아니라 김해군은 백년의 대계인 하천개수, 낙동교가설, 도로정리 등의 일로 면민이 적지 않은 부담을 하고 있는 때에 그다지 급하지 않은 공원설치는 면민의 공상을 제하여 사업을 연기하도록 주장하여왔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3월 말의 예산회의에 호별 분할의 6월에 상당한 공원설치적립금이 계상되었음으로 이의 삭제를 ○○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고 원안집행의 움직임을 보이며 5월 2일 예산인가와 9일 면협의회를 열고 이의 보고로서 究竟협의회원 1동의 보결사직의 절규에 이르렀는데 이에 더하여 아직 사정 등급답문도 하기전에 ○과의 告知면에 발포하였음으로 장, 회계 등은 상사의 방침과 면민의 공상에 불감하여 속히 사표를 제출하는데 동시에 협의원의 총사에까지 한것이라는데 이 문제의 진전여하는 세간의 주목을 집중하고 있다.³⁶⁾

이러한 상황에서 공원설립은 추진될 수 없었다. 그럼에도 수로 왕릉에 의한 관련유지 정비는 계속되었다. 1931년에는 金欽培가 김해읍 흥동 위토답 2필 612평 헌성하였고, 1932년에는 연신루, 안향각, 동재, 서재, 서원청, 회로당, 고자사 중수, 우물 신설하였다. 이때 2800원이 들어갔다. 이 일환으로 1934년에 金容禧가 전사청 3칸 중건하고 許澈錫이 숭보재 중수, 담장 신축하였다. 1933년 가락왕릉수선실행원장이자 김해고적보존회의 고문인 金

36) 「김해군 가락면의 공원문제遂重大化 上司方針과 民意에 兩難하여 면장면협의 원회계원총사직」, 『동아일보』, 1932. 5. 24.

性學은 5회에 걸쳐서 수해로 피해를 입은 수로왕릉 및 왕비릉, 부속건물 등을 자비 1만 5천원 5백원을 내어 정비하였다.³⁷⁾ 한편 이 당시 수로왕 후손들도 수로왕 관련 유지의 정비와 함께 공원 조성에 동조하고 있다.

경남김해군은 낙동강 유역에 고대 문화를 자랑하는 거금 1,892년 전 가락수로왕의 옛 도읍으로서 춘동추우에 황폐된 송선전(崇善殿)과 1만8천여의 능원은 탐방객의 눈을 찌푸리게하는데 금번 낙동강 가교가 완성됨을 따라 날마다 탐승객들이 답지하는데 이를 수리키 위하여 황덕순(黃德純)씨의 발의로써 그 후손인 김허(金許)양족이 가락왕사(駕洛王史)편찬위원회를 조직하고 준비에 분망하든 중 간행 자금이四千원이나 되었으므로 근일에 왕사를 간행하여서 전조선에 산재한 四백만 김허 양족에게 분포하고 五만원의 중수비를 편출하여서 늦어도 금주는 공사를 완성하리라 하며 지난 29일 위원회에서 는 다음 같은 결의를 하였다 한다.

決議의 要頌(?)

1. 가락왕사의 편찬간행(자금이 되었으므로 속히 간행)
2. 왕릉(송선전)의 수리
3. 김해능원(공원)의 신설

이상의 운영자금은 5만원으로 하고 왕사분포수입 및 大方○志塚(金,許兩氏)의 의언으로 함³⁸⁾

37) 이 당시 김성학이 사비를 들여 수로왕릉을 수선하였는데, 그 비용은 『김해군의 사적』에서는 1만5천5백원, 『동아일보』 1만7천여원으로 다소 차이가 있다. 여기에는 보존회가 직접 발간한 책자의 비용을 넣었다. (김해군고적보존회 편, 「수로왕릉부속건물수선상황」, 『김해군의 사적』, 국립중앙박물관 보관 고문서 106.; 「폐허참경의 가락국고도 능원과 건물을 중수 전후 만칠천여원의 경비로써 능원 수축과 신도로를 개척하기로 해 김해 金性學氏 부처의 미거」, 『동아일보』, 1934. 6. 16.)

38) 「駕洛王史編纂과 王陵公園을 設置 전조선의 金許 양족이 협력, 資金五萬四千圓 調達(金海)」, 『동아일보』, 1933. 5. 2.

총독부의 공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이 시기는 이미 고적 보존과 관련하여 官民一致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³⁹⁾ 당시 낙동강 가교가 건설되고, 관광객이 방문하면서 지역의 대표적 고적에 대한 정비는 필요했다. 즉, 수로왕릉은 후손들에게는 신성한 조상의 유지이지만 지역에서는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성을 가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관광객들에게 보여짐으로써 문화재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도 기대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수로왕 후손들이 원활한 현양 사업을 계속해 나가기 위해서 일정부분 타협을 해야 했다. 그런데 지역 선진,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주요 예산은 수로왕 후손들이 대부분 부담하고 있었다.

이는 총독부가 후손들의 조상 숭모의식을 이용한 것이며, 지역 사회에서는 이들의 숭모의식을 바탕으로 한 희생을 통해 지역 경제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무언의 압력을 행사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한편 30년대 초반 수해로 인해 김해지역의 도시 재정비가 현안이 되면서 그 일환으로 공원설립의 논의가 확장되었다.⁴⁰⁾ 이리 하여 계획만 무성하고 실행하지 못한채 위축된 고적보존회는 새로운 목적인 일반인의 위락과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구상을 담은 보존회규정(김해고적보존회 규약)을 개정하였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다음과 같다.⁴¹⁾

39) “이에 보존령의 취지에 따라 각 지역에서는 (전략)지역민들이 직접 보존 시설을 강구하는 등 관민일치(官民一致)로서 노력하고 (중략) 관민일치 고적의 보존애호에 힘쓰는데 고달픈 모양으로 처리하기 서로 번거로운 경우..(후략)”(소화10년 7월 8일 「古蹟保存施設に關する件」(국립중앙박물관 고문서 161.))

40) 김해군고적보존회, 1934, 「金海の史蹟保存及風致計劃案」, 『金海郡の史蹟』, 3p. (국립중앙박물관 보관 고문서 106.)

41) 「金海郡古蹟保存會」(국립중앙박물관 고문서 161번.)

(전략)

제3조 본회는 김해에 있어서 임나로서 내려오는 고적유물을 영구히 보존하는 것과 동시에 널리 사회에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실시한다. (중략)

제13조 회장은 김해군수

제15조 회장, 부회장은 이사 및 평의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한다.

제17조 평의위원회는 매년 1회 그것을 개최한다.

제18조 평의위원회에 부합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자산의 관리, 운용 및 처분에 관한 사항
2. 수지예산 및 결산
3. 고적, 유물, 보존방법 및 그에 관련한 사항
4. 기타 주요하다고 인식되는 사항(중략)

제22조 본 규약은 소화 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러한 규약 개정으로 보존회 활동은 보다 활력 있게 전개될 가능성이 열렸다. 즉, 이전에 비해 사업을 더욱 확장하여 고적중심의 공원을 완성시키려는 움직임이 커졌다. <표3>의 김해군고적보존회 사업 변화를 살펴보면 1934년 김해군고적보존회의 사업은 이전에 비해 고적의 현장을 위한 항목이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 김해군고적보존회 사업의 변화

1917년 김해군고적보존회	1934년 김해군고적보존회
1. 현존고적의 유지보존 2. 매몰된 사적유물의 현창 3. 고적과 유물 현황의 촬영	1. 고적의 보존 2. 유물의 보존 및 수집 3. 고적유물에 관한 조사연구 및

4. 기타고적과 사적보존상 필요한 수단을 강구	그 발표 4. <u>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반의 계획 및 설비</u> 5. 기타 고적, 유물의 보존에 관련한 사항 및 <u>고적유물을 사회에 소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 되는 사항</u>
---------------------------	--

출전 : 「김해군고적보존회 규칙」(국립중앙박물관 보관 고문서 106.); 김해군고적보존회편, 1934, 「김해군고적보존회 규약」, 『金海郡の史蹟』(국립중앙박물관 보관 고문서 161.)

새롭게 추가된 사업은 김해의 고적유물을 널리 사회에 소개하고, 이를 찾는 관광객에게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는 고적을 중심으로 하는 현대식 공원의 설치를 생각한 것으로 김해 고적보존회의 가장 핵심적인 활동이 되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안인 「사적보존 및 풍치계획안」(1934)이 아래와 같이 수립되었다.⁴²⁾

1. 수로왕릉

- 왕릉의 수리 정비 : 배수 및 기타 보호 방법 강구, 간개, 습지에 적응 잘 하는 침엽수림 및 활엽수를 식재
- 부지의 확장 : 황릉 입구의 동쪽으로 약 1,300평과 서남부 쪽으로 약 1,500평을 새롭게 확장
- 왕릉의 환경 정비 : 왕릉 주위에 회로를 설치, 일반인들이 함부로 들어오는 것을 금함, 새롭게 부지에 편입된 입구 동측의 작은 부분은 疎林(소수의 버드나무, 벚나무, 류가 적합)

42) 책자 내의 계획안과 신문기사의 내용을 참고로 간략하게 정리하였다.(김해군고적보존회편, 1934, 「金海の史蹟保存及風致計劃案」, 『金海郡の史蹟』(국립중앙박물관 보관 고문서 161.) ; 「고보존위주, 김해의 대공원, 원예학대가본향 박사고안, 구체적설계서내용」, 『동아일보』 1928.12.01.

- 부근 청년축구장의 장소를 삼림지로 하고 소운동장을 폐지, 만약 필요하다면 그것을 구역 내 동북쪽 돌레길 바깥으로 이동하여 설치
 - 왕릉문 앞의 통로를 정리해 정문길, 회로당 앞 등에 느티나무, 벚오동 나무 식재
 - 서남쪽 모퉁이 약 2천평의 확장구역에 연자루 이축, 원래의 소정원은 원내로 통하는 회로 바깥으로 이전, 연자루에 부속시켜 연못 형성
2. 허후릉
- 주변 수림을 그대로 유지, 사람들의 출입을 단속하기 위한 울타리 설치
 - 후릉앞 정비(도로에서 후릉으로 향하는 참배로와 돌계단 아래의 광장) : 광장 주변에 부지 750평
추가로 편입, 돌계단 → 돌길, 광장 양측에 느티나무, 회화나무 식재, 광장 동쪽 소나무 숲 조성, 서쪽 회노당과 후릉 사이 소나무 식재
3. 구지봉
- 그대로 공원으로 이용, 토사 봉긋로 황폐한 버랑쪽을 정비, 정상에 이르는 길 확장, 급경사 사이에 석단을 깔아 보행 편리, 배수지의 완성, 소나무, 벚나무, 전나무 등 식재
4. 남산 및 남지
- 자연지세가 공원으로 적합, 일반인들의 편의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방안 마련, 여흥적 대공원 조성에 주력
 - 남산 : 야외 유락장으로 조건이 좋음 : 도로의 신설, 전망휴게 시설, 나무 식재
 - 남지 : 평지의 임수공원의 설비 시설을 하는 것이 좋음.
 - 운동장, 임수산보도로, 전망·휴게집회·오락 등 목적의 건물, 다루(茶樓)·보트창고 등 설치, 급수시설 확충
 - 남산과 남지를 잇는 도로 개설
5. 봉황대
- 특이한 지형, 전망 좋음 : 주요도로와 연결, 전망대 혹은 신사 부지에 적합, 부지 확장 필요

- 봄가을 대중관람의 장소, 연극, 운동의 장소, 산책공원으로 활용

6. 가락성지

- 유일한 사적, 보존과 별도로 공원적 시설 더해져야 함, 현재 보호 때문에 옛 석대 바깥쪽에 새로운 부지 확보필요
- 성지에 이르는 원래의 길 보수, 동쪽에 새로운 길 조성(석판으로 하여 보행 편리)
- 묘지로서 사용 금지

7. 초선대

- 있는 그대로 유지, 도로와 연결되는 길 신설

대체적인 내용은 가락왕릉을 중심으로는 고적보존을, 김해 남지는 자연스럽게 남산과 연결하고 그 부근에는 약 5천 평의 공설운동장, 집회소 등을 건설하려는 것이었다.⁴³⁾ 그 외 지역문화재의 보존 차원에서 수로왕릉을 비롯한 김해지역의 주요 문화재를 정비하였다. 이는 1931년 4월 당시 신문 상에 소개된 계획안과 크게 차이가 없지만 세부 항목에서 이전 보다 구체적으로 계획되었다. 이러한 공원조성 활동을 전개한 보존회의 1934년까지 자산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⁴⁴⁾

1929년 8월 22일 김해금용조합의 예입 769원 8전

1930년 8월 22일 우편저금잔금 예입 3엔88전

1929년 8월~1934년 4월 김해읍지 29부 대금 232엔

1929년 8월 22일부터 1934년 2월 28일까지 이자수입 213엔 99전

합계 1,218엔 93전

43) 위의 기사, 『동아일보』 1928. 12. 1.

44) 김해군 고적보존회 편, 1934, 「史蹟保存及風致計劃案」, 『金海郡の史蹟』(국립중앙박물관 고문서 161.)

1930년 7월 1일부터 1933년 9월 25일까지 지출 257엔 3전
잔액 961엔 90전
김해읍지 대금 미수금(97부 대금) 776엔

이상과 같이 오랜 시간 구상하고 계획안도 작성했고, 수로왕 후손들도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음에도 공원설립계획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럼에도 김해읍지의 경우는 발간되었고, 이는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후 1936년까지도 공원계획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당시 주요 기사를 모아보면 다음과 같다.

(a)

고대조선을 자랑할 가락국도(駕洛國都)김해(金海)에 가락왕릉유적(加(?)洛王陵遺蹟)을 현창(顯彰)하고 왕릉왕비릉급 무속전각의 유지수리 영성(靈城)의 확장등을 계획하여 가락국왕 유적봉존회(駕洛國國王遺(?)蹟峯存會)를 조직하여 널리 회원을 모집하여 기금을 三十만원이나 모집하는데 峯存會 사업이 왕성(완성?)되면 김해는 큰 공원으로 화한다고 한다. 지난 十七일에 김해군수, 읍장등 四씨가 도청을 방문하고 양해를 구하였는데 왕릉부근에는 龜旨峯, 要(?)石塔, 盆城臺(?), 招仙臺, 孔子廟, 山城殉節岩, 其他貝塚등이 절비한 명승지이다.(부산)⁴⁵⁾

(b)

二천년, 찬란한 역사를 가진 대가락국수로왕능(大駕洛國首露王陵)과 허후능(許后陵)을 일대확충하여 대공원을 건설하고자 경남도산림과(山林課)에서 수차로 탐사한후 이미 설계안이 완성된모양이라는데 이번 설계안의 내용은 김해읍 교외 회현리(會峴里)에 공설운

45) 「古都金海에다 大公園計劃, 가락국왕유적 보존회조직 基金卅萬圓募集」, 『동아일보』, 1936. 1. 19.

동장을 만들어서 봉황대(鳳凰臺)와 수로왕릉(首露王陵)을 연결시키고, 현재 연자루(燕子樓)를 왕능내에 이전하여 가락고전박물관(博物館)을 설치하는등 일대수리를 할것이라하는바 금번 총공사비를 三十만원으로 김해왕능봉존회(金海王陵峯存會)에서 가락국지(國誌?)를 발행하는동시에 전조선각지에 김, 허 양성(金許兩姓)을 중심삼고 모집할것이므로 불원 장래에 그 출현을 볼것이라고 한다.⁴⁶⁾

1936년에는 단체의 명칭도 김해왕릉봉존회로 바꾸고, 공사비 30만원을 모금하였다. 이때 사업의 중심을 전조선 각지의 김·허 종중으로 하였다. 그리고 도 산림과에서 설계를 완성하였다. 이 상과 같이 설립 초기부터 1930년대 중반까지 김해고적보존회의 공원 조성사업은 계획만 무성할 뿐 끝내 완성되지 못하였다. 그 원인으로 다양한 것을 들 수 있으나 크게 다음 세 가지 요인이 작용한 것이었다고 본다.

첫째, 김해군의 경제상황이 악화되었다는 점이다. 1930년대 초 대홍수로 인한 피해로 지역민들의 삶을 파멸했고, 지주제의 강화로 농민의 불만은 컸다.⁴⁷⁾ 더욱이 낙동강 가교 건설 등 도시정비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과 함께 고적을 중심으로 하는 공원설치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면비로 지역민들이 일정하게 부담해야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원을 설치하는 사업이 급선무가 아니라고 인식되었다. 따라서 면협의회에 공원 조성으로 책정된 2,000원 조차도 상정하지 말고, 공원계획을 미루어야 한다는

46) 「고도김해에다 대공원설계, 가락국왕유적 보존회 조직, 기금 30만원모집」, 『동아일보』, 1936. 1. 18. ; 「2천년전 대가락국의 왕릉 중심 대공원건설, 30만원의 공비를 들여서, 도산림과의 설계완성」, 1936. 4. 17.

47) 이준식, 1992, 「일제침략기 김해지방의 농민운동」, 『역사와 현실』 7, 한국역사연구회, 248p~292p.

여론이 형성되었다. 그럼에도 면장 김철식(金哲植)이 면협의회 예산심의에서 단독으로 공원비를 계상함으로써 지역민, 협의회원들 사이의 갈등을 야기했다.⁴⁸⁾

둘째, 비용의 문제이다. 김해군고적보존회가 처음 설립되던 제1기의 활동에서 예산은 수로왕 자손들의 의연금에 중심이 되었다. 그러나 수로왕 후손들과의 이해관계가 매끄럽지 못한 상황에서 비용은 김해군고적보존회의 자체 경비, 기부금, 회비, 도의 지원 등에 치중될 수 밖에 없었다. 더욱이 김해군은 처음부터 고적공원이 완성되면 면에 이관하여 면영사업으로 전환하고자 했는데, 당시 김해지역의 경제상황과 면의 예산관계를 고려할 때 이는 실현되기 어려웠다.

셋째, 수로왕 후손들과의 이해관계 상충이다. 김해군고적보존회의 초기 활동에서 조상의 성역을 공원화 하는 것에 반대한 김해 김·허 양 종중에 의해 사업은 중지되었다. 그 이후 수로왕릉 정비에 적극적인 金性學이 김해군고적보존회에 참여하고 있으나 여전히 관계는 매끄럽지 못하였다. 1934년 김해군고적보존회가 재정비 되어서도 수로왕 관련 유적을 중심으로 공원화 하려는 계획이 계속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崇寶齋 중건기에 의하면 공원조성사업은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중략)…. 도리켜 보건데 지금은 세도(世道)가 일변하고 제도도 따라서 개혁 됐으니 조정이나 민간에서 함께 수봉하던 생각도 옛날처럼 희망할 수 없는 즉, 무릇 능묘를 보수할 비용과 춘추향축의 수요는 모두 당연히 후손으로부터 이를 변리하게 되므로서 …(후략)⁴⁹⁾

48) 「김해군 가락면의 공원문제遂重大化 上司方針과 民意에 兩難하야 면장면협의 원회계원총사직」, 『동아일보』 1932.5.24

『승선전지』에서도 나타나듯 1935년까지 관, 민간, 수로왕 후손들이 함께 관련 고적을 수리하기도 했지만, 결국 수로왕 후손들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상을 통해 김해군 고적보존회의 활동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김해고적보존회는 설립 초기 수로왕릉을 중심으로 지역 고적의 정비를 추진했다. 그러나 김·허 양 후손의 반대에 부딪혀서 사업을 완성하지 못한다. 그러나 지역 개발의 차원에서 고적을 중심으로 하는 공원조성사업이 진행되자 사정은 달라진다.

고적을 통한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지역의 대표적 문화재인 수로왕릉은 필연적으로 고적보존단체의 활동과 접점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후손들의 선양사업과 함께 김해지역 내 공원설치 문제는 서로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官民一致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 그러나 예산부족, 자연재해, 수로왕 후손들과의 이해관계 상충 등으로 사업은 계획만 무성한 채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였다.

IV. 구성원 : 말단 행정조직망과 일체화

현재 알 수 있는 보존회 회원은 1910~1920년대 회장을 맡았던 역대 군수 외에 1934년 활동했던 인물들이다. 이는 1934년 발간된 『김해군의 사적』을 통해 알 수 있었는데, 당시 김해고적보존회의 회원은 인쇄와 수기로 표기된 인물 모두 포함하여 약 34

49) 승선전지속간위원회, 「승보재중건기(현관2)」, 『崇善殿誌』, 대경출판사, 1980년, 664p.~668p.

명이었다.⁵⁰⁾ 회장은 김해 군수였으며 그 외 부회장, 이사, 고문, 평의원이 있었다. 대체적으로 평의원은 지역 면장이었다. 대부분이 조선인이었지만, 회원의 1/3 이상은 일본인들로 구성되어있다. 모두 김해 혹은 인근 지역에서 각종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회지도층 인물이며 수로왕 후손도 포함되어 있다. 김해고적보존회의 규약 및 회칙과 이들의 약력을 통해 <표 4>과 같이 주요 인물들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표-4> 1934년 발간 『金海郡の史蹟』에 수록된 김해군고적보존회 회원

회원명	역임	거주지	비고
金義鎔	회장	김해읍	총독부 군 서기, 서무과, 김해군수
黃德純	회장	김해읍	재무부, 김해군수, 산업과장
武子東州男	부회장	미상	부산수상경찰서 등 경부. 총독부 사회과 촉탁
牛島熊記	부회장	김해읍	1935년 현재 金海邑長, 市區改正, 제반 시설, 산업, 상공업의 발전, 교육의 확충 등 정비에 노력
羽田増造	이사	미상	김해군 촉탁(1922년 ~ 1923년)
金漢洪	이사	미상	경상남도지방 토지조사위원회 임시위원, 김해군 군참사 등 역임,
辛昌烈	이사	미상	경상남도 내부부 학무과 촉탁(1923년 ~ 1927년), 김해부 촉탁(1935년 ~ 1937년)
哉田與一 衛門	이사	미상	미상
金惠在	고문	김해읍	농촌지도자, 기업가, 김해지역 민중교육, 수리·금융 주합, 동척촉탁 등 지역민들의 환경 개선 활동

50) 인쇄된 인물에 줄을 긋고 새로운 이름을 옆에다 기재하였는데, 전·현직 김해고적보존회 회원으로 추정된다. 여기서는 이들 모두 다 포함한다. 그 중 哉田與一衛門은 정확하게 판별되지 않아 추가조사가 필요하다.

일제하 김해지역의 고적보존회 실태와 활동 / 33

高瀬秀實	고문	미상	미상
白南日	고문	미상	任通信司電話課主事敍判任官八等, 하동, 통영, 거창 등 군수,
李康瀆	고문	미상	전주사람, 고종 12년생, 칠산면장, 경상남도 평의원, 해방 후 김해수리조합장(1945년 12월~1950년 3월), 1955년 졸(72세)
靑柳種吉	고문	진영	운송업 등 기업대표, 수리조합, 곡물상조합장, 면협의원, 향토방위 활동,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노력
植田義夫	고문	김해	지방개발활동에 노력, 경상남도 도회의원, 진농회특별의원, 산업조합협회장, 면협의회원, 학교조합 관계자
金性學	고문	미상	수로왕 후손, 부산토지 이사
朴錫權	고문	미상	민족주의계 청년운동가. 김해교육회 조직, 합성학교 운영
宋本耕一郎	고문	미상	밀양양조(주) 중역(조선 탁주 및 약주의 제도도매업), 삼본정미(주) 감사(정미업 및 강착유업, 미잡곡의 매매 중개 및 위탁업, 및 창고업, 그에 관련한 부대사업)
古澤與右衛門	고문	미상	미상
文治漢	고문	미상	미상
金台源	고문	미상	미상
横田俊郎	고문	미상	김해농업학교 교장(1934년 ~ 1936년)
松本耕一郎	고문	진영	정미업, 양조, 잡화어상 등 중역, 경남도회의원, 고야산 상회 설립운영, 자선사업, 사회시설확충등에 노력
宋世允	평의원	미상	1920년 진례청년회장, 해방후 진례면장, 향교전교를 지냄
李郷雨	평의원	미상	대저면장(1934년), 부산어업조합장
文順敏	평의원	미상	명지면장(1933년 ~ 1939년)
尹大龍	평의원	미상	녹산면장(1933년 ~ 1935년)
徐度坤	평의원	미상	장유면장(1930년 ~ 1936년)

李康舜	평의원	미상	주촌면장(1932년 ~ 1934년)
宋成學	평의원	미상	하계면장(1928년), 진영면장(1929년 ~ 1934년), 금융조합, 운수회사 중역
宋祺島	평의원	미상	미상
裴璉煥	평의원	미상	김해면장(1929년 ~ 1931년), 생림면장(1934년 ~ 1938년), 공립보통학교 학무위원
曹永煥	평의원	미상	상동면장(1918년 ~ 1940년)
金鳳洙	평의원	미상	대저면장(1924년~1933년, 1936년~1937년), 하동면장(1934년)
竹島正雄	간사	미상	미상

출전 : 『조선총독부및소속관서직원록』, 『조선총독부시정25주년기념표창자명감』,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 『조선공로자명감』, 『대한민국직원록』 참조.(한국역사정보종합시스템 이용.) ; 『남선일보』, 『동아일보』, 『황성신보』 ; 이병태, 1989, 『김해인물지』, 김해문화원.

비고 : 회원에 대한 정보를 찾지 못했을 경우 미상으로 기재했다. 거주지의 경우 1934년 당시를 기준으로 하였다.

회장은 1명으로 회장은 보존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 관리하였다. 이 명단이 작성될 당시 회장은 金義鎔이며, 그 외 1910년대 ~ 1930년대에 이르는 동안 회장을 역임한 자로 李元鎬, 閔麟鎬, 黃德順이 있다. 金義鎔은 총독부 군 서기, 서무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1934년 당시 김해군수로 재직하였다. 李元鎬, 閔麟鎬는 경상남도 지방 토지조사위원회 임시위원을 거쳐 각각 1911년~1918년, 1925년~1928년 김해군수를 역임했다.

부회장은 2명으로 회장을 보좌하고 만약 회장 사고시 그 업무를 대리하였는데, 모두 일본인이었다. 牛島熊記은 1935년 김해읍장으로 시구개정 및 제반시설, 산업, 상공업 발전, 교육 확충 등 정비에 노력하였다. 총독부, 도·군 서기, 시구개정, 세금·재무 관련 업무, 토목·상공업·교육 등 식민지 행정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인물이었다. 武子東州男은 부산 수상경찰서 등에서 경부로 활동하였고, 총독부 사회과 촉탁으로 활동한 인물이다. 이사는 3명으로 일본인과 조선인 2명이었다. 羽田増造와 辛昌烈는 김해군 촉탁으로 특히 辛昌烈은 경상남도 내무부 학무과 촉탁의 경험이 있다. 金漢洪은 경상남도지방 토지조사위원회 임시위원과 김해군참사를 역임하였다.

고문은 13명으로 조선인 7명 일본인 6명이다. 이들은 지방 개발활동, 청년운동가, 금융·수리조합, 교육 등 사회 각층에서 활동하던 인물들로, 그 중 수로왕 후손도 포함되어 있다. 대표적인 인물로 靑柳種吉, 植田義夫, 朴錫權, 金惠在, 金性學이 있다. 우선 일본인 고문으로 靑柳種吉은 운송업 등 기업 대표, 수리조합 중역, 곡물상조합장, 면협의원, 향토방위 활동, 사회기반시설 확충, 재해구제 등 김해 및 진영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쳤던 인물이다. 植田義夫는 지방개발활동을 주로 하였는데 1935년 당시 경상남도에서 도회의원, 진농회 특별의원, 산업조합협회장, 김해산업조합장 등을 역임했고, 면협의회원 및 학교조합 관계자로 활동했다.

조선인 고문으로 朴錫權은 민족주의계 유지로 김해지방 청년운동가들과 김해교육회를 조직, 이들은 중등학교 설립 추진, 자금 부족하여 기존의 교육시설인 합성학교 운영에 주력한 인물이다. 金惠在는 기업대표·행정가·농촌지도자로, 김해지역의 민중교육, 수리조합·금융조합 역원, 동척의 촉탁, 교풍회, 위생회 부회장 등 지역민들의 생활환경개선에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인물이다. 평의원은 총 11명으로 전부 조선인이다. 이들은 대저, 명지, 녹산, 장유, 주촌, 하계, 진영, 상동, 생림 등 김해 각지의 면장들이다. 그 중 일부는 기업을 운영하거나 청년회, 공립보통

학교 학무위원 등에서 활동했다.

1934년 당시 보존회의 규약 제13조, 제14조에 따르면 회장은 김해군수의 직에 있는 자로 추대하는 것이었다. 당시 김해군 군수는 경남도지사의 지휘 감독 아래에 면 기구, 군 단위 공공 조합 및 단체 등을 지도, 감독하는 권한을 가졌다. 면에 대한 지도와 감독도 강력했다.⁵¹⁾ 따라서 이러한 군수가 고적보존회의 수장이 된다는 것은 고적보존회가 총독부의 지방 정책을 반영하는 단체라는 것을 의미한다. 부회장 및 기타 이사는 회장이 촉탁할 수 있다. 부회장은 식민지 행정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인물이며, 총독부 사회과를 통해 고적 등에 대한 제반 지식도 어느 정도 갖춘 사람이다. 따라서 이들은 회장을 보좌하여 단체의 활동을 이끌어 갔다.

고문은 회무에 관해 회장의 자문에 응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당시 사회, 교육, 경영 등 분야에서 지역을 이끌어 가던 계층이었다. 이들은 평소에도 지역 사회의 진흥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다. 여기에는 수로왕 후손들도 포함되었다. 김해는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이었으므로, 농업 외에 경쟁력을 높여줄 것은 고적이었다. 따라서 지역 경기가 좋지 못한 시기 이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원조성 사업 등 일련의 활동을 통해 지역의 성장 동력을 찾고자 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이들의 풍부한 경험은 고적보존회의 활동 방향에 대해서도 많은 역할을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51) 지수걸, 2006, 「일제하의 지방통치 시스템과 군 단위 ‘관료-유지 지배체제’ - 윤해동 저, 『지배와 자치』(역사비평사, 2005.)에 대한 논평-」, 『역사와 현실』 제63, 한국역사연구회, P.345~P.377.

평의원은 평의원회에 부과된 사항을 심의하였다. 이들은 학식 또는 명망 있는 자로 하였는데, 고적보존회의 경우 모두 김해지역 각 면의 면장이 평의원이었다. 이들의 역할은 1934년 당시 보존회의 규약 제 17조, 18조에 의하면 평의원회를 매년 1회 개최하였다. 회의에 부합하는 내용은 1. 자산의 관리, 운용 및 처분에 관한 사항 2. 수지예산 및 결산 3. 고적, 유물, 보존방법 및 그에 관련한 사항 4. 기타 주요하다고 인식되는 사항이 있을 때이다. 그런데 이들 면장은 군수가 직접 임명하였고, 군수는 각 면에 대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특히 면장은 면 사무에 대한 처리 능력도 있었지만, 동시에 지역민들에게 덕망이 높은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고적보존회의 평의원이 각 면의 면장이라는 점은 고적보존회의 사업 시행에 따른 지역민들과의 갈등에서 완충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요컨대, 보존회 회장은 대대로 군수가 맡았고 부회장과 고문은 회장을 보좌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 따라서 식민지 행정 경험이 있는 관리를 비롯하여 평의원은 모두 면장이었다. 그리고 김해지역의 교육활동가, 기업경영가, 청년운동가 등 민간 유지가 참여하는 官民一致의 모습을 보였다. 그만큼 본 사업에서 민간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는 사정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한 가운데 김해 김·허 문중에서도 일부 후손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지방 행정과 문중과의 타협점에 대한 문중내의 논의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V. 결 론

이상과 같이 통칭 김해고적보존회의 실태와 활동을 살펴보았다. 김해지역은 가락국 시조 수로왕 및 왕비릉, 임나부의 고적, 임진왜란의 흔적 등 명소가 산재한 곳으로 알려졌다. 일찍부터 종종이나 후손들이 성소로 인식하였으며 특히 수로왕 관련 유적은 지역사회의 숭앙의 대상이었다. 그런데 합방이 되면서 문중의 시조 현양 사업이 식민지 정책으로 위축되었다. 때문에 후손들은 능 안의 땅을 함부로 매매할 수 없다는 것을 동리 이장에게 분명히 하고, 위토에 관리인을 두고 관리 책임약정서를 쓰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토지조사사업이 실시되자 대부분 위토가 몰수되었고, 새롭게 후손들이 위토답을 현성하여 겨우 유지 활동을 했다.

한편 합방전후로 '임나일본부'에 대한 일본인의 관심이 증가하였다. 특히 총독부박물관 고적조사위원회 축탁 등 관변학자들에 의한 고적조사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에 關野貞, 今西龍, 黑板勝美, 鳥居龍裝 등에 의해 고분, 성곽, 패총, 건축물 등이 발굴조사 되면서 고적보존회의 필요성이 고양되었다. 이를 계기로 군수 주도로 1917년 12월 8일 최초로 김해군고적보존회가 설립되었다. 그 후 보존회는 시기에 따라 그 명칭을 달리하면서 1936년까지 명맥을 이어왔다.

처음 보존회가 형성될 당시는 총독부 박물관에 의해 진행된 고적조사사업을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만든 것이었다. 그 후 『고적보존에 관한 건』(총제469호)을 계기로 사실상의 법적단체로 설립되었다. 그러나 이후 그 활동이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초

기의 설립 취지에 맞는 사업은 진행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지역개발의 일환으로 진행된 공원조성사업을 주도하면서 보존회는 다시 등장하기 시작한다. 이후 공원사업의 진행과 관련하여 이름이 등장했으나 이 역시 원활하지 못하였다.

보존회 사업으로는 설립 초기에는 수로왕릉 정비 사업이 중심이었다. 따라서 3천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수로왕 사적 조사, 왕릉지 편찬, 왕릉 외관 정리, 기념모임 설립, 습지와 늪지도랑 굴화분과 수목 식재, 관람도로설치, 공동의자 설치, 문묘주변 정리 등의 활동이 이루어졌다. 한편 1930년 전후부터는 고적공원 조성사업이 중심이 되었다. 이 사업은 지역의 현안으로 관심이 컸던 만큼 일본에서 임학박사를 초빙하여 구체적인 설계안도 작성하였다. 면 예산으로 공원조성 사업비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수로왕 후손의 지원도 있었다. 이후 1936년까지도 공원설립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1)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 지역민들이 외면 (2) 비용의 부족 (3) 수로왕 후손들과의 이해관계 상충 등의 원인으로 실패하였다.

주요 회원으로는 식민지 행정의 경험이 있는 조선인·일본인 관리 및 김해 각지의 면장들이었다. 그리고 지역 내 사회, 경제, 기업경영 등 각 방면에서 활발히 활동을 하던 민간 유지들이 대거 참여하여 官民一致의 모습을 보였다. 그만큼 보존회의 활동에서 민간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는 사정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한 가운데 김해 김·허 문중에서도 일부 후손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지방 행정과 문중과의 타협점에 대한 문중내의 논의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군수와 면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행정조직이 주도하여 설립된 김해고적보존회는 처음부터

지역 고적의 보존과 시조의 현양이라는 문중의 목적을 합치시키지 못했다.

요컨대, 1930년대 전후 지방 사회의 퇴락과 경제의 파탄으로 지역 사회가 동요하자, 김해군은 이러한 지역사회의 불만을 해소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보존'이라는 명분으로 조선의 성소를 대중의 위락시설로 전환하여 그 불만을 희석하는 수단으로 삼고자 했다. 당시 지역의 민간 유지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존회의 활동에 참여했고, 수로왕 후손들도 지역 행정과의 절충점을 모색하고자 동참했다. 그러나 김해군의 불순한 의도는 결국 30년대 조선의 전통문화에 대한 광범한 폄하와 위상 격하를 촉발하여 민족문화의 보존과 수호에 오히려 독이 되었다. 당시 전통문화의 대중화 논리는 진실로 조선인 대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식민 통치 강화를 위한 또 다른 수단이었다.

[부록 1] 1917년 설립당시 김해군고적보존회의 규칙⁵²⁾

김해군고적보존회 규칙

一 보존회의 명칭구역과 보존의 주지

1. 명칭 김해군고적보존회
2. 구역 김해군 일원
3. 보존의 주지 가락국 수로왕릉 및 동 왕비릉은 2천 년의 역사를 말하며, 문묘는 또한 5백년 전에 건축된 것으로 그 문화가 자랑할만하다. 기타 城跡, 고분 등 명소가 산재하고 혹은 임나부의 고적이 전해지고 임진의 전역(임진왜란; 필자)을 회고하게 할 만한다. 이에 오랜 비바람으로 옛날의 위용은 사라져 사방의 고목만이 울창하다. 대저 성스러운 시조의 위업을 숭경하고 雄圖를 후세에 전하고자 유적을 보존하고 그 혜택을 고루 펼쳐서 현대에 전한 것을 목적으로 하여, 본회를 발기하여 유적을 美化하고 본 郡 발전의 밑천이 되게 하고자 여러 방면의 인사를 불러 본회의 취지를 익찬하도록 하고자 한다.

대정 6년 12월 8일

김해고적보존회장 이원호

二. 보존회의 설립시기

대정 6년 12월 8일

三. 보존회의 회계

김해군고적보존회 대정 7년도 세입세출예산서

세입부

금5천원

52) 「김해군고적보존회」(국립중앙박물관 고문서 161번.)

세출부

금5천원

내역

금2천원 기본금

금3천원 왕릉문묘 영성비

금8백원 화분구매비

금2천엔 토목비

금3백엔 사적조사 및 왕릉지편찬비

四. 보존회의 시설

김해고적보존회계획서

대정6년도

1. 본회의 기본재산을 조성하고 대정 7년도 이후 사업계획을 시행할 목적으로 의손금 5천원을 모집하였다.

대정 7년도

1. 수로왕사적 및 자손연혁을 조사하고 왕릉지를 편찬할 것
2. 왕릉 및 비릉의 주위는 침엽수(노송나무, 곰솔, 삼나무 등)를 식재하고 송경의 모임을 일으켜 외관을 정리할 것
3. 습지와 늪지도랑을 굴착하고 토사를 퇴적해 구릉을 만들어 잔디, 앵두나무, 단풍, 소나무 등의 화분수목을 심을 것.
4. 제2항의 구역 외에는 그것을 개방하고 일반 관람자의 유람을 제공하는 도로을 만들고 공동의자 등을 설치할 것
5. 문묘주위에 침엽수를 심고 정문 내곽 등의 수선할 것.

五. 보존회 규칙약

제1조 본회는 김해고적보존회라고 칭하고 사무소는 경상남도 김해에 설치

제2조 본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이 하고

1. 현재고적의 유지보존에 관한 것
2. 매몰된 사적유물의 현창에 관한 것
3. 고적 및 유물의 현황촬영에 관한 것
4. 기타 고적 및 사적보존상 필요한 수단을 강구할 것

제3조 전조 목적에 찬성하고 본회 사업에 협조하는 자로서 본회원
으로 함

제4조 본회는 다음의 역원을 설치한다.

회장 1명 부회장 1명
평의원 약간 간사 약간

제5조 회장은 경상남도 김해군수로 추천하고

제6조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사고 시 그를 대리함 평의원은 본회의 사무에 대
한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또 이를 보조함

제7조 본회 경비는 수로왕 자손 및 유지 등의 기부금으로서 지변
하고 별도로 회비를 징수함

제8조 본 회 사업시행에 관한 세칙 및 회계에 관한 세칙은 역원회
에서 그것을 정함

六. 발간물

자료취합 중

[부록 2] 1934년 당시 김해군고적보존회의 규약⁵³⁾

김해고적보존회 규약

제1장 명칭 및 사무소

53) 「김해군고적보존회」(국립중앙박물관 고문서 106번.)

제1조 본회는 김해고적보존회라고 칭한다.

제2조 본회는 사무소를 김해군청 내에 설치한다.

제2장 목적 및 사업

제3조 본회는 김해에 있어서 임나로서 내려오는 고적유물을 영구히 보존하는 것과 동시에 널리 사회에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실시한다.

1. 고적의 보존
2. 유물의 보존 및 수집
3. 고적유물에 관한 조사연구 및 그 발표
4.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제반의 계획 및 설비
5. 기타 고적, 유물의 보존에 관련한 사항 및 고적유물을 사회에 소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

제3장 자산 및 경비

제5조 본회 설립 당시 자산은 다음과 같다.

1929년 8월 22일 김해금융조합의 초 예입 769원8전(안에 연자루 수선비잔금 5엔 10전을 포함)

1930년 8월 22일 우편저금 잔금 예입 3원88전

1929년 8월 22일부터 1934년 4월 5일까지 김해읍지 29부 대금 232원

1929년 8월 22일부터 1934년 2월 28일까지 예금이자 수입 213원79전

합계 1,218원93전

1930년 7월 1일부터 1933년 9월 25일까지 지출총액(별지 내역명세) 257원3전

잔액금 961엔90전

김해읍지 대금 미수금 (97부 대금) 776엔

제6조 기부에 의한 수입으로 특히 지정된 것을 제외한 것 외 모두

기본재산으로 편입한다.

제7조 기본재산은 다른 자산과는 구별하여 그것을 관리하고 현금은 우편관서 또는 확실한 은행에 예입한다.

제8조 기본재산은 평의원의 2/3이상 동의해서 얻지 않으면 그 처분을 할 수 없다.

제9조 본회의 경비는 다음에 기재된 것으로서 그것을 지변

1. 제5조에 기재된 재산
2. 기본재산에서 생기는 수입
3. 잡수입

제10조 매 회계연도를 경유하여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기본재산에 편입하고 다만 평의회의 결의를 얻어 다음연도 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제11조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4월1일에 시작해서 다음해 3월 11일에 끝난다. 단 초년도는 설립일에서 시작한다.

제4장 역원

제12조 본회에 다음의 역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이사 2명
4. 자문 약간명
5. 평의원 약간명

제13조 회장으로서는 김해군수의 직에 있는 자로 추대

부회장 및 기타 이사는 회장이 촉탁하고 고문 및 평의원은 학식 또는 명망 있는 자로서 촉탁

제14조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관리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사고 때 그 업무를 대리
고문은 회무에 관해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평의원은 평의원회에 부과된 사항을 심의한다.

제15조 회장, 부회장은 이사 및 평의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단 보궐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간으로 한다.

제16조 본회는 간사, 사무총탁 및 사무원 약간 명을 두는 것으로 하고 그 총탁, 해임. 임면은 회장이 한다.

제5장 평의원회

제17조 평의원회는 매년 1회 그것을 개최하고 다음의 장소에서 임시평의원회를 연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식되는 때
2. 평의원 1/40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볼 수 있도록 청구할 때, 평의원회의 의장은 회장과 경미한 사항은 임시서면으로 동의를 구할 수 있도록 함

제18조 평의원회에 부합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자산의 관리, 운용 및 처분에 관한 사항
2. 수지예산 및 결산
3. 고적, 유물, 보존방법 및 그에 관련한 사항
4. 기타 주요하다고 인식되는 사항

제19조 평의원회의 개최는 평의원회 1/40이상 출석이 필요하다. 단, 동일사항으로 부재회(付再會)하는 경우에는 이에 근거하고 있다.

제20조 평의원회의 의사는 출석자의 과반수로서 그 결의를 가부동수할 때 의장의 결정에 의한다.

제6장 규약의 변경

제21조 장래 본 규약의 조항을 변경해야할 때는 평의원 3/40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제7장 부칙

제22조 본 규약은 소화 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참고문헌】

- 국립중앙박물관 고문서 106. 각도 고적보존관계철
- 국립중앙박물관 고문서 161. 고적보존시설
- 김해군고적보존회편, 1934, 『金海郡の史蹟』(국립중앙박물관 고문서 106. 각도 고적보존관계철)
- 송선전지속간위원회, 1980, 『崇善殿誌』, 대경출판사.
- 『남선일보』
- 『매일신보』
- 『동아일보』
- 『황성신보』
- 『대한민국직원록』
- 『조선공로자명감』
-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
- 『조선총독부관보』
- 『조선총독부및소속관서직원록』
- 『조선총독부시정25주년기념표창자명감』
- 김해문화원, 『金海金石文總攬』
- 이병태, 1989, 『金海人物誌』, 김해문화원.
- 이순자, 2008,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사업 연구』, 경인문화사.
- 최석영, 2004, 『한국박물관의 근대적 유산』, 서경.
- 권태억, 2007, 「1930년대 일제의 동화정책론」, 『한국 근대사회와 문화 3』,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신재, 2009, 「1910년대 경주의 도시변화와 문화유적」, 『신라문화』 33,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89p. ~ 109p.
- -----, 2011, 「1920년대 경주의 고적조사정비와 도시변화」, 『신라 문화』 38,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331p.~354p.

- 김익한, 1997, 「1930년대 일제의 지방지배와 면 행정」, 『한국사론』 37,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207p. 251p.
- 이준식, 1992, 「일제침략기 김해지방의 농민운동」, 『역사와 현실』 7, 한국역사연구회, 248p.~292p.
- 지수걸, 2006, 「일제하의 지방통치 시스템과 군 단위 ‘관료-유지 지배체제’ - 윤해동 저, 『지배와 자치』(역사비평사, 2005.)에 대한 논평-」, 『역사와 현실』 제63, 한국역사연구회, P.345 ~P.377.
- 지호원, 1995, 「일제하 김해 지방의 민중 교육」, 『교육사상연구』, 교육사상연구
- 최석영, 2002, 「식민지시대 ‘고적보존회’와 지방의 관광화-부여고적보존회를 중심으로-」, 『아시아문화』 제18호,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 연구소.
- -----, 2002, 「일제 강점 상황과 부여의 ‘관광명소’ 화」, 『비교문화연구』 9, 서울대 비교문화연구소.
- -----, 2005, 「일제 강점 상황과 부여의 ‘관광명소’ 화의 맥락」, 『인문과학논집』 35, 인문과학연구소.

【국문초록】

김해지역은 옛날 가락국의 중심지이자 일본인들에게는 소위 ‘임나 일본부’의 중심지로 고대 일본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인식된 곳이었다. 때문에 총독부박물관과 일제 관변학자들의 주도로 일찍부터 고대 한일관계를 고증하기 위한 고적조사사업이 이루어졌다. 이들의 고적조사는 현지에서 그것을 보조할 수 있는 고적보존회의 설립을 유도하였다. 김해에서도 고적조사사업의 영향으로 1917년 고적보존회가 설립되었다. 이후 1930년대 전후 보존회는 지역 내 수로왕 관련 유적을 중심으로 이른바 ‘향토 문화’를 정비·유지하여 지역 개발의 일환으로 이용하고자 하였다.

한편 김해지역은 전통을 지켜 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어느 지역보다 강하게 남아있는 곳이었다. 특히 수로왕 관련 유적은 오랜 시간 후손들에 의해 꾸준하게 관리가 되고 있던 터였다. 후손들은 식민지 통치 아래에서 고적보존회와는 별도로 다양한 형태로 김수로왕 유적을 관리하고 현창하는 사업에 적극 나섰다. 때문에 김해지역에서 고적보존회의 활동은 일정하게 제약을 받았는데, 설립 초기 수로왕 유적 중심의 활동이 문종과의 갈등으로 중지된 것이었다. 그러다 1920년대 후반 지역개발차원에서 김해에 산재한 고적을 중심으로 현대식 대공원을 설치하고자 하였다. 때문에 보존회는 일본에서 설계자를 초빙하여 구체적인 계획안까지 수립했다.

1930년대로 들어오면서 일정부분 후손들도 보존회의 활동에 동참하였다. 그러나 문종과의 이해관계 상충, 김해지역의 경제여건 악화, 사업 시행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계획은 실현되지 못했다. 다만 수로왕 후손들에 의해 수로왕릉 및 관련 유적이 소소하게 정비될 뿐이었다. 이러한 보존회의 활동을 이끌어 가던 인물은 군수였으며, 주요 회원으로는 식민지 행정의 경험이 있는 조선인·일본인 관리 및 김해

각지의 면장들이었다. 그리고 지역 내 사회, 경제, 기업경영 등 각 방면에서 활발히 활동을 하던 민간 유지들이 참여하였는데, 그 중 수로왕 관련 유지에 힘을 쏟던 후손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군수와 면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행정조직이 주도하여 설립된 김해고적보존회는 처음부터 지역 고적의 보존과 시조의 현양이라는 문종의 목적을 합치시키지 못했다.

요컨대, 1930년대 전후 지방 사회의 퇴락과 경제의 파탄으로 지역 사회가 동요하자, 김해군은 이러한 지역사회의 불만을 해소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보존'이라는 명분으로 조선의 성소를 대중의 위락시설로 전환하여 그 불만을 희석하는 수단으로 삼고자 했다. 당시 지역의 민간 유지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존회의 활동에 참여했고, 수로왕 후손들도 지역 행정과의 절충점을 모색하고자 동참했다. 그러나 김해군의 불순한 의도는 결국 30년대 조선의 전통문화에 대한 광범한 폄하와 위상 격하를 촉발하여 민족문화의 보존과 수호에 오히려 독이 되었다. 당시 전통문화의 대중화 논리는 진실로 조선인 대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식민 통치 강화를 위한 또 다른 수단이었다.

핵심주제어 : 김해고적보존회(金海古蹟保存會), 가락국왕유적봉존회(駕洛國王遺跡奉尊會), 가락왕사편찬위원회(駕落王史編纂委員會), 김해왕릉봉존회(金海王陵奉尊會), 수로왕릉(首露王陵), 고적주유공원(古蹟周遊公園)

【Abstract】

**The status and activities of Gimhae Historic Site
Preservation Society under Japanese colonization
in Chosun**

Sunwoo, Sung-hye / Dong-Eui Univ.

Gimhae Region is recognized for a main center for old Garkguk and the place which played an important role for Japanese people with ancient Japan as the center of the so-called 'Imnailbonbu'. Because of this, a historic site investigation was led by Government-General Museum and Japanese scholars to ascertain ancient Korea-Japan relations. Their investigation induced an establishment of the historic site preservation society to assist the investigation in local. In Gimhae, with the impact of investigation projects, the preservation society was founded in 1917. Since the 1930s after World War, the society aimed to utilize the spot around the historical remains related to King Sooro within the region as a regional development by maintaining and sustaining the so-called 'local culture'.

Meanwhile, Gimhae region had a strong willingness to keep its tradition more than any other region. Especially, remains related to King Suro were managed constantly by the descendants. The descendants actively went on business of managing portholes of King of Kim Sooro remains in various

ways, separate from the preservation society under the colonial rule. Because of this the preservation society's activities were restricted regularly, and it was burst out as a cessation of activities around King Sooro's remains in its earlier days of establishment from conflicts between clans. Then, in late 1920s, they tried to found a modern grand park with scattered historic sites in Gimhae region in terms of regional development. Thus, the preservation society has established a specific proposal by inviting a designer from Japan.

Entering 1930s, descendants, to some extent, also participated in the activities of the preservation society. However, the plan was not realized due to conflicts of interest statement, deterioration of economic conditions in Gimhae region, budget shortfall in implementing projects, etc. Only the king of Sooro and related remains were maintained in graceful manner. This activity of the preservation society was led by a governor, and major members were regional chiefs of each subregion named Myeon in Gimhae region, who had an experience of colony administration and managing people from Chosun and Japan. And private community leaders who were active in each aspect of regional society, economy, and corporation business also participated, and from those were descendants who have put their effort to maintain King Sooro-related remains. However, the Gimhae preservation society which was established by administrative organization mainly by governors and leaders, did not meet the purpose of clans, which were the preservation of regional historical sites and letting the founder to gain the fame

from the first time.

In a nutshell, when the regional community agitated in 1930s with the collapse of the rural community and economy, Gimhae-gun needed to resolve the distress from the community. Therefore, as a means for diluting the dissatisfaction, it changed the Chosun dynasty's holy place into the public's recreational facility in the name of 'preservation.' At that time, community leaders participated in preservation meeting based on their experience, and King Sooro's descendants of King Sooro also tried to seek a trade-off with the local government. Nevertheless, in the 1930s, Gimhae-gun's impure intention finally led the extensive underestimation and downgrading of Chosun's traditional culture, which rather became a poison for preserving and protecting national culture. At that time the theory of popularization of traditional culture was truly not for the mass people of Chosun, but another means to strengthen the colonial rule.

key words : Gimhea Historic Site Preservation Society, A King of Garakguk's Historic Site Reverence Society, A King of Garakguk's History Institute, Gimhea Royal Mausoleum Reverence Society, A Tombs of Sooro, The Historic -Site park

투 고	심 사	재심 사	완 료
2012. 10. 25	2012. 11. 29	2012. 12. 5	2012. 12. 15